

연접묘를 통해 본 고구려 적석총의 전개 과정

A Study on Development of Goguryeo
Stone Mound Tomb via Connection Tomb

홍정우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I. 서론

II. 대상유적 검토

1. 연접묘의 구조
2. 대상 유적 현황

III. 유형 및 분포 양상

1. 유형분류
2. 분포 양상의 특징

IV. 단계 설정 및 전개 과정

1. 단계 설정
2. 전개 과정과 의미

V. 결론

국문 요약

연접묘는 먼저 축조된 무덤에 다른 무덤을 덧붙여가며 축조된 고분으로 적계는 2~3기, 많게는 10기 이상의 무덤이 연접하기도 한다. 연접묘는 산사면 또는 하천과 인접한 평지에 단독묘와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는데, 동일 형식의 무덤이 연접하는 유형과 다른 형식의 무덤이 연접하는 유형이 있으며 그 양상은 복잡한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력묘자 고분군과 통구 고분군을 중심으로 연접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 전개 과정과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고력묘자 고분군은 연접묘가 특정 군집에서만 확인되고 규모도 고분군 내에서 대형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으며 통구 고분군은 하위 고분군별로 연접묘의 유형 및 규모에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연접묘의 전개 과정을 적석총의 각 형식이 출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각 단계에 대한 시간적 위치는 전개 과정을 고구려의 정치적 변동과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구체화시켜보았다.

1단계(무기단 적석총 단계)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중반으로 고력묘자 고분군과 통구 고분군에서 연접묘의 축조가 시작되며 고력묘자 고분군은 산사면 상부에서, 통구 고분군은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축조된다.

2단계(기단 적석총 단계)는 1세기 후반~3세기 중반으로 고력묘자 고분군의 경우 아직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보았을 때 연접묘를 비롯한 고분 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통구 고분군은 연접묘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3단계(계단 적석총 단계)는 3세기 후반~5세기 후반으로 고력묘자 고분군의 경우 3세기 말 이후 연접묘의 축조가 중단되며 통구 고분군은 수량이 급증할 뿐 아니라 하위 고분군별로 축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3단계는 통구 고분군에서 대형·초대형 적석총이 등장하는 시기로 연접묘는 여전히 중·소형 적석총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접묘의 각 단계별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고구려의 수도 이전, 나부 체제의 변화 등 정치적 변동 과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접묘는 가족묘 혹은 집단묘를 넘어 고구려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집단의 결속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고구려, 적석총, 적석묘, 연접묘, 가족묘, 집단묘

I . 서론

연접묘는 먼저 축조된 무덤에 다른 무덤을 덧붙여가는 방식으로 축조된 고분을 말한다. 고구려 고분들 중에는 이러한 연접묘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적게는 2~3 기, 많게는 10기 이상이 연접하며 고구려 고분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속한 제요소 중 하나로서 다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고구려 연접묘에 대한 연구는 유형 분류와 매장습속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孫仁杰 1993 · 2004 · 2007; 柳嵐 2001 · 2004; 김성철 2005; 胡夢露 2013). 그러나 유형 분류의 경우 연구자마다 기준이 다르거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매장습속에 대해서도 가족묘 혹은 집단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魏存成 1996; 東潮 1997 · 2008; 강현숙 2013; 정호섭 2011; 최태정 2014).

[표 1] 胡夢露와 김성철의 유형 분류 비교

湖夢露	단일형			혼합형				
	무 기 단	기단	계단	기단+ 무기단	기단+ 계단	무기단+ 계단	적석+봉토	
김성철	1유형 (석곽적석총이 두 기 이상 연결)				2유형 (석실적석총이 두 기 이상 연결)			
	1형식 (부장곽 없음)		2형식 (부장곽 있음)		1형식 (부장곽 없음)	2형식 (부장곽 있음)		

[표 2] 孫仁杰와 柳嵐의 유형 분류 비교

유형	孫仁杰	柳嵐
I	階墻積石石壙串墓	積石石壙串墓
II	有壙積石石壙串墓	方壙積石石壙串墓
III	有壙積石石室串墓	方壙階梯積石石壙串墓
IV	土石混合串墓	方壙階梯積石石室串墓
V	-	土石混合串墓

이렇듯 연접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한 바가 크지만 고구려 고분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초대형 적석총 및 벽화고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고구려 연접묘를 중심으로 적석총의 전체적인 분포 양상과 전개 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상 유적은 환인 고력묘자 고분군과 집안 통구 고분군이 해당하며 통구 고분군은 고분 전체에 대한 축량자료가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비교적 세밀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대상 자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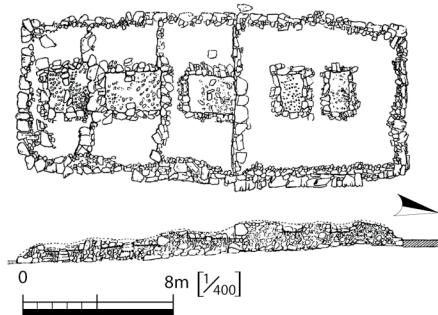
1. 연접묘의 구조

고구려 연접묘의 연접방식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축조되는 무덤은 방형 혹은 장방형의 정형화된 형태이지만 덧붙여 축조되는 무덤은 먼저 축조된 무덤과의 연접부를 한 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세 번만 축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덧붙여 축조되는 무덤은 한 쪽 변 없이 먼저 축조된 무덤에 의지하는 형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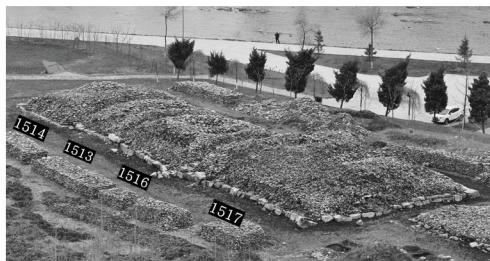
이는 연접묘를 구성하는 단위 고분이 개별 분구를 갖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구에 매장부가 여럿 존재하는 다광(곽)식 또는 동분이혈 등과 구분된다. 각각의 단위 고분에 위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는 있으나, 연접묘는 이러한 매장방식을 갖는 무덤들이 분구를 달리하여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연접묘의 구조에 대해 도면과 사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산하 3232호묘는 계단 적석총 1기에 기단 적석총 3기가 연접한 형태이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계단 적석총은 사방에 기단석을 두르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나머지 무덤들은 연접부에 해당하는 북면에 기단석을 축조하지 않은 채 나머지 세 번만 축조하고 연접부는 먼저 축조된 무덤에 의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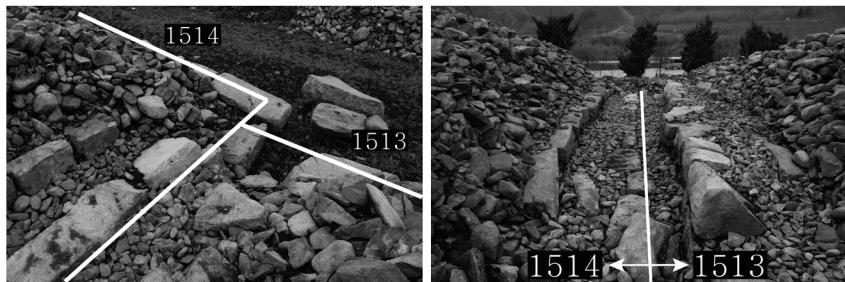


[도면 1] 우산하 3232호묘(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편집)



[사진 1] 산성하 1514~1517호묘(필자 촬영 2016)

기단 적석총인 산성하 1514~1517호묘는 1514호묘가 가장 먼저 축조되고 뒤이어 1513~1517호묘가 연접된 것으로 추정된다. 1514호묘와 1513호묘의 연접부를 살펴보면, 먼저 축조된 1514호묘의 경우 무덤 주변을 두르고 있는 기단석이 1513호묘와의 연접부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만 1513호묘는 연접부에 무덤 내부를 채우는 채움돌만 확인될 뿐 기단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진 2] 1514호묘와 1513호묘 연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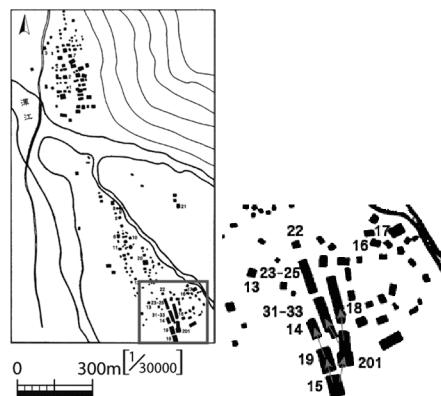
결국 연접묘는 가장 먼저 축조되어 완전한 형태를 갖춘 무덤에 불완전한 형태를 띠는 무덤들이 덧붙여져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무덤을 잇대어 축조하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곁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무덤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친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무덤을 덧붙임으로써 평면적 확대를 꾀했던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 유적 현황

1) 환인 고력묘자 고분군

고력묘자 고분군은 혼강 본류의 구릉 및 평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환인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고분 중 상고성자고분군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고분군에 해당하며 서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오녀산성이 위치해 있어 고분군의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무덤은 이른 시기의 무기단 적석총부터



[도면 2] 고력묘자 고분군 (東潮 1997 편집)

봉토석실묘까지 분포하는데 연접묘는 고분군 최남단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며 15호묘를 기점으로 19호묘와 201호묘로 나뉘고 다시 14호묘, 23~33호묘, 18호묘로 분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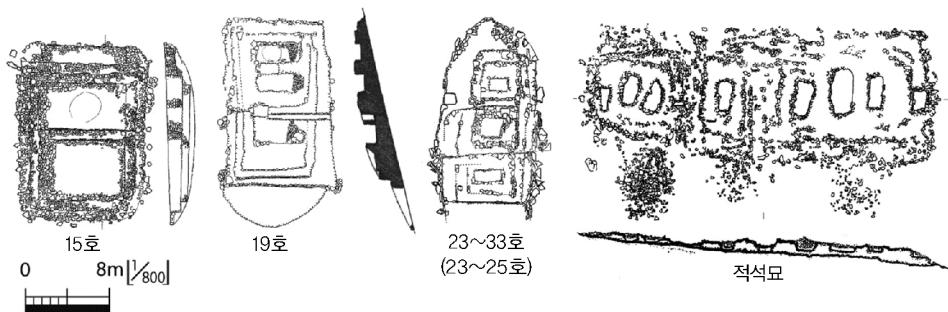
1994년에는 고분군 동남쪽 구릉 사면에서 ‘고려묘자적석묘(高麗墓子積石墓, 이하 ‘적석묘’로 약칭함)’가 조사되었으며 고력묘자 고분군은 현재 환인댐 건설로 인하여 대부분 수몰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고력묘자 고분군에서 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진 연접묘는 4기로 [표 3]과 같다.

[표 3] 고력묘자 고분군 연접묘 조사 현황

규모(m)

고분명	길이×너비×높이	단위 고분	
		외형	길이×너비×높이
15호	17.5×13×2.5 (桓仁縣文物志) 16×11×2.6 (魏存成)	계장	8.3×12.2×2.5 9×13×2.6
19호	19.5×11.5×2.7	계장	4.6×10×1.25 3.4×11.5×2.7
23~33호	17.6(+) \times 11(+) \times ?	계장	8.3×9×? 4.5×10.5×? 4.7×11×? 26~33호 미보고
적석묘	34×13×1.4	계장	9×9×0.8 9×12×1.4 16×13×1

※ 보고내용에 제원이 없는 경우 필자가 직접 계측하였음.



[도면 3] 고력묘자 고분군 연접묘(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편집)

2) 집안 통구 고분군

통구 고분군은 압록강 종류 북안에 자리하며 남쪽으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산맥과 접한다(최종택 2015). 1997년 조사에서는 우산하(JYM), 산성하(JSM), 만보정(JWM), 칠성산(JQM), 마선구(JMM), 하해방(JXM) 고분군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하해방 고분군은 지형적으로 나머지 고분군과 구분되고 적석총이 확인되지 않아 통구 고분군에서 제외하는 시각이 있으며 필자도 이에 동감하고 있다. 산성하와 만보정 고분군은 하나의 고분군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의 고분군으로 묶어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구 고분군은 1966년도 조사에서

총 11,300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1997년도 조사에서는 10,782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2). 그러나 편호가 누락되거나 무덤이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기존에는 동실묘(洞室墓)로 보고되었으나 발굴조사 결과 적석총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는 등 기존자료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측량자료의 무덤 편호 방식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연접묘는 무덤 전체에 하나의 번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연접묘를 구성하는 단위 고분에 각각 번호가 부여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번호만을 취합해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연접묘의 수량 파악에 큰 오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수량을 재조정하여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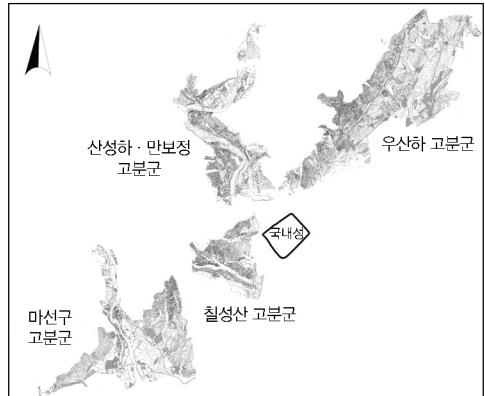
통구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적석총 3,119기 중 연접묘는 298기이며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통구 고분군 연접묘 현황

무	기	장	계	무 + 기	무 + 계	무 + 기 + 계	기 + 계	적석총 + 봉토석실	불명	합계
36	99	1	109	4	4	1	31	2	11	298

※ 무: 무기단 / 기: 기단 / 장: 계장 / 계: 계단

통구 고분군의 연접묘는 한 가지 형식의 무덤이 연접한 형태 외에도 다른 형식의 무덤이 연접한 경우도 있으며 그 양상 또한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적석총과 봉토석실묘가 연접하는 독특한 형태도 소수 확인된다. 현재까지 통구 고분군에서 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진 연접묘는 12기이며 [표 5], [도 5·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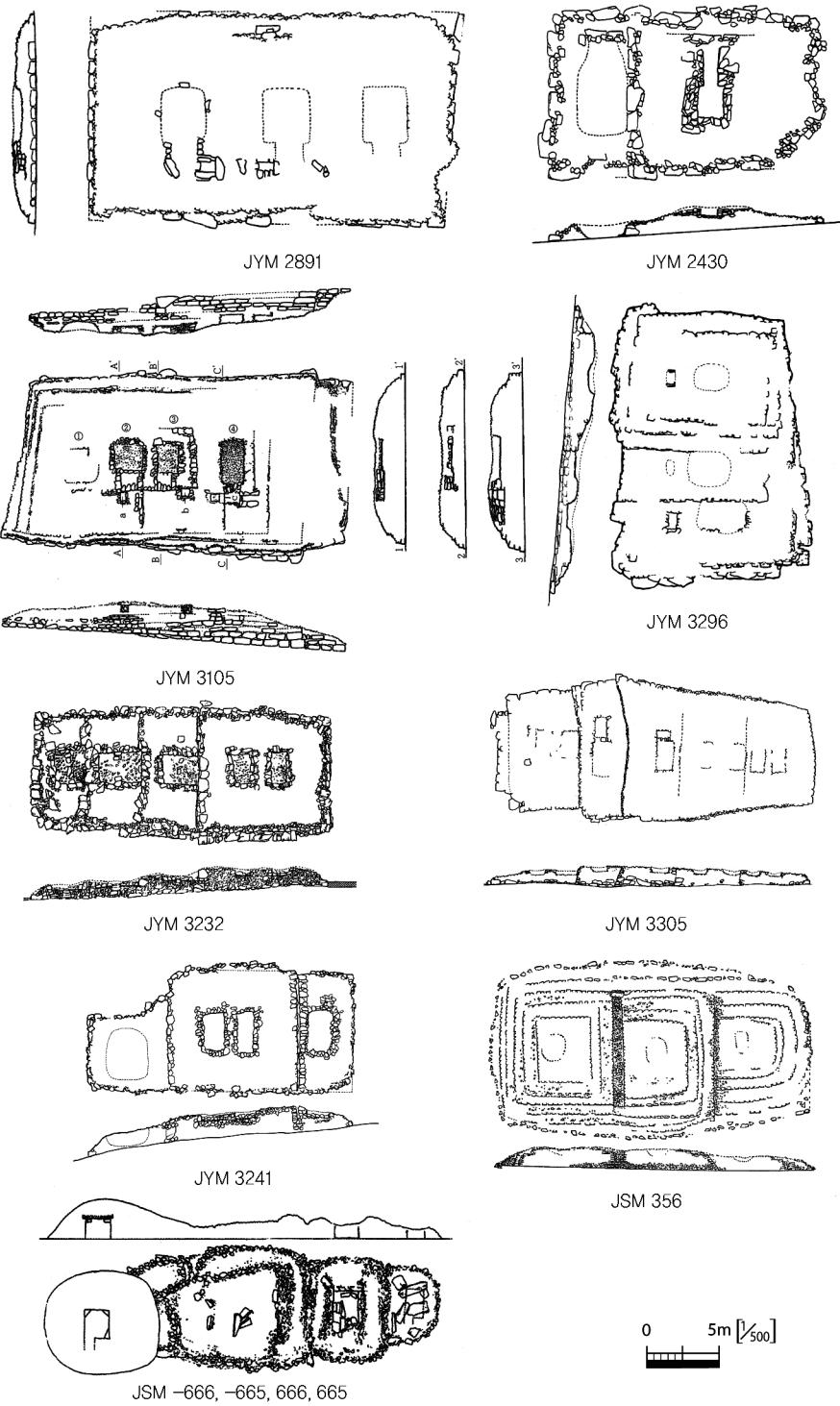


[도면 4] 통구 고분군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02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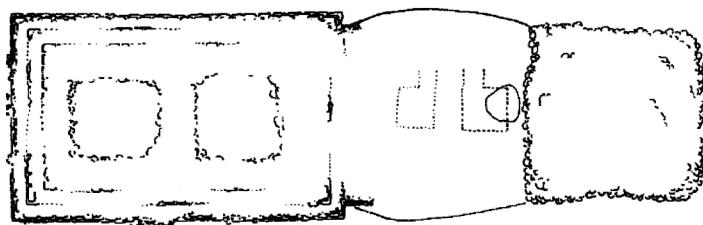
[표 5] 통구 고분군 연접묘 조사 현황

규모(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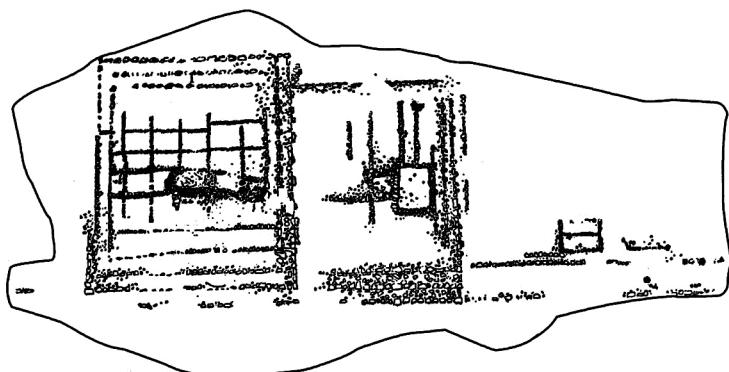
고분명	길이×너비×높이	단위 고분	
		외형	길이×너비×높이
우산하 2403 (JYM 2403)	19×12×2	기단	5.47×12×2
		계단	13.53×12×2
우산하 2891 (JYM 2891)	26×15×1.8	기단	?×15×1.8
			?×15×1.8
			?×15×1.8
우산하 3105 (JYM 3105)	30.5×16.5×3	계단	?×16.5×3
			?×16.5×3
			?×16.5×3
우산하 3232 (JYM 3232)	20.5×10×1.3	기단	9×9×0.8
			4.1×8.5×1
			4×8.5×0.9
			3.5×8.5×0.8
우산하 3241 (JYM 3241)	19.5×8.5×1.7	기단	17×9.5×1.7
			5.4×6.8×1.2
우산하 3296 (JYM 3296)	20×14×2.5	계단	9×12×1.95
		기단	3.3×12.6×1.2
		계단	5.25×13.65×1.2
우산하 3305 (JYM 3305)	28×14×2.5	기단	6×10×0.8
			5.5×11×1.5
			6×12×1.8
			4×12×1.7
			6×10×1.4
산성하 동대파 356 (JSM 356)	28×15×2.2	계장	24×19×2.6
			10.5×16×1.7
산성하 —666~665 (JSM —666~665)	34.2×10×3	무기단	6×4×(1+)
			8.2×6×1.5
			10×10×(1.3+)
		봉토	10×10×3
산성하 1069~1070 (JSM 1069~1070)	46×14×3	계단	22×14×3
		봉토	12×12×3
		무기단	12×12×3
만보정 242 (JWM 242)	45×17.2×3.5	계단	14.5×17.2×1.1
			12×17.2×1
			11×17.2×0.4
			7.5(?)×?×?
마선구 397~399 (JMM 397~399)	51×15×5	계단	20×15×3
			14×10×3
			7×10×4
			1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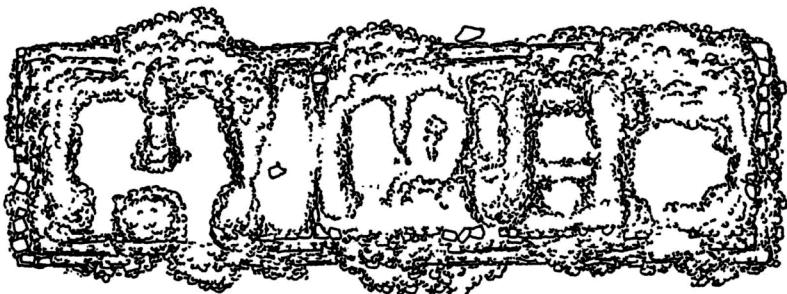
[도면 5] 통구 고분군 연접묘1(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편집)



JSM 1069, 1075, 1017



JWM 242



JMM 397, 398, -398, 399

0 5m [1:500]

[도면 6] 통구 고분군 연접묘2(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편집)

III. 유형과 분포 양상

1. 유형분류

적석총의 분류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분구 또는 매장주체부의 변화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연접묘 역시 적석총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적석총의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연접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형식의 무덤이 연접하기도 하지만 다른 형식의 무덤이 연접하기도 하며 연접 방향과 순서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띤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접묘의 유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단편적인 부분을 토대로 분류하여 전체를 포괄하기 어려웠다.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 연접묘의 유형을 큰 틀에서 분류하도록 하겠다.

1) 묘제

연접묘는 적석총이 주된 대상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석총이 봉토석실묘와 연접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는 매우 적지만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 적석총과 봉토석실묘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묘제이며 봉토석실묘와 연접한 적석총 역시 세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석총만으로 이루어진 연접묘(I)와 적석총이 봉토석실묘와 결합한 연접묘(II)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분구

적석총의 분구는 무기단, 기단, 계단식으로 변화하며 최근에는 계단식과 축조방법이 다른 계장식 적석총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계장식은 계단식 축조기술이 정착되기 이전에 무덤의 고대화를 위한 기술적 모색의 결과 등장한 것으로(강현숙 2017) 별도의 형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있다.

고력묘자 고분군의 연접묘 중에는 계장식이 존재하며 산성하 동대파 356호묘 역시 계장식이기 때문에 계장적석연접묘는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장

1)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에 포함시키기는 않았지만 산성하 1271~12175호묘 역시 적석총과 봉토석 실묘가 연접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孫仁杰·遲勇 2007).

식을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연접묘는 분구의 형태에 따라 단일형(A)과 복합형(B)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형은 동일 형식의 적석총이 연접한 형태이며 복합형은 서로 다른 형식의 적석총이 연접한 형태이다. A유형은 무기단, 기단, 계장, 계단으로 세분되며 B유형은 적석총 각 형식의 조합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3) 매장부

적석총은 수혈식 장법에서 횡혈식 장법으로의 변화가 관찰되며 연접묘 역시 이와 동일한 변화가 나타난다. 수혈식 장법은 통상 석광(石廣) 또는 석곽(石櫨)으로 불리는데 기존에는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둘을 구분해서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적 변화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수혈식 장법(a)이라는 큰 틀을 속성으로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석광과 석곽을 언급하도록 하고자 한다.

횡혈식 장법으로는 광실(廣室)과 석실(石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광실은 석실과 달리 벽석이 비교적 영성하며 개석(蓋石)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나 후대의 파괴로 개석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개석의 유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큰 틀에서 횡혈식 장법(b)으로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광실과 석실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또한 적석총에는 하나의 무덤에 수혈식 매장부가 하나만 존재하는 단광(과)식과 두 기 이상 존재하는 다광(과)식, 횡혈식 매장부가 하나만 존재하는 동분동혈과 두 기 이상 존재하는 동분이혈이 있다. 연접묘는 단위 고분에는 단광(과)식이 단광(과)식 또는 다광(과)식과 연접하기도 하고 다광(과)식과 동분동혈 또는 동분이혈이 연접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띤다.²⁾ 따라서 크게 단장(1)과 다장(2)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한다.

현재까지 발굴 및 보고된 자료가 적은 관계로 모든 연접묘를 속성에 따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통구 고분군의 경우 분구의 형태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접묘는 분구 형태만이라도 분류를 시도해보도록 하겠다.³⁾

2) 연접묘의 매장부 분류는 강현숙(2013)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3)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에서는 적석총의 매장주체부를 석광(石廣), 전실((磚室), 석실(石室)로 구

[표 6] 연접묘 분류 속성

속성	연접묘 유형			
묘제	적석총(I)			적석총+봉토석실(II)
분구 형태	단일형(A)			복합형(B)
무기단	기단	계장	계단	무기단/기단/계장/계단 조합
매장부	수혈식(a)			횡혈식(b)
	석광	석곽	광실	석실
	단장(a1)	다장(a2)	단장(b1)	다장(b2)
	단광(곽)식	다광(곽)식	동분동혈	동분이혈

[표 7] 통구 고분군 연접묘 유형별 수량

	I		II		불명	합계
	A	B	A	B		
우산하	58	6			11	75
산성하 만보정	97	12	1	1		111
칠성산	40	7				47
마선구	50	15				65
수량	245	40	1	1	11	298
	285		2			

통구분지 연접묘는 IA와 IB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IA유형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II A와 II B유형의 경우 각각 1기 뿐 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적석총에서 봉토석실묘로 전환되는 고구려 묘제의 흐름상 II 유형은 전환기에 해당하므로 자료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보고가 이루어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해보면 고력묘자 고분군의 연접묘는 모두 수혈식 장법을 택하고 있는데 IAa1유형만 확인되며 단광(곽)식과 다광(곽)식이 연접하는 IAa1+a2유형도 확인된다. 통구 고분군에서는 여러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단광(곽)식은 단광(곽)식 혹은 다광(곽)식과 연접하며 동분동혈은 동분동혈 혹은 동분이혈과 연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향후 자료가 축적되면 보다 더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분하고 대부분 석광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험몰된 형태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석광으로 보고되었으나 조사 결과 광실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어 조사 전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8] 연접묘 유형 분류

연번	고분명	단위 고분	분구 형태	매장주체부	분류
1	고력묘자 15호	남묘	계장	수혈식	I Aa1
		북묘			
2	고력묘자 19호	남묘	계장	수혈식	I Aa1+a2
		북묘			
3	고력묘자 23~32호	23	계장	수혈식	I Aa1
		24			
		25			
4	적석묘	단1	계장	수혈식	I Aa1+a2
		단2			
		단3			
5	우산하 2403 (JYM 2403)	남묘	기단	횡혈식	I Ab1
		북묘			
6	우산하 2891 (JYM 2891)	2891-1	기단	횡혈식	I Ab1
		2891-2			
		2891-3			
7	우산하 3105 (JYM 3105)	3105-1	계단	횡혈식	I Ab1+b2
		3105-2,3			
		3105-3			
8	우산하 3232 (JYM 3232)	3232-1	기단	수혈식	I Ba2
		3232-2			
		3232-3			
		3232-4			
9	우산하 3241 (JYM 3241)	3241-1·2	기단	수혈식	I Aa1+a2
		3241-3		수혈식	
10	우산하 3296 (JYM 3296)	3296-1	계단	수혈식	I Ba1
		3296-2			
		3296-3			
11	우산하 3305 (JYM 3305)	3305-1	기단	횡혈식	I Ab1+b2
		3305-2			
		3305-3			
		3305-4			
12	산성하 -666~665 (JSM 665~-666)	665	무기단	횡혈식	II Ab1
		-665			
		666			
		-666			
13	산성하 1069~1017 (JSM 1069~1017)	1069	무기단	횡혈식	II Bb2
		1075		횡혈식	
		1017		?	
14	산성하 동대파 356 (JSM 356)	356-1,2	계장	수혈식	I Aa1
		356-3			
15	만보정 242 (JWM 242)	S1	계단	수혈식	I Aa1+b1
		S2		횡혈식	
		S3		횡혈식(?)	
		S4		횡혈식(?)	
16	마선구 397~399 (JMM 397~399)	397	계단	횡혈식	I Ab1+b2
		398			
		-398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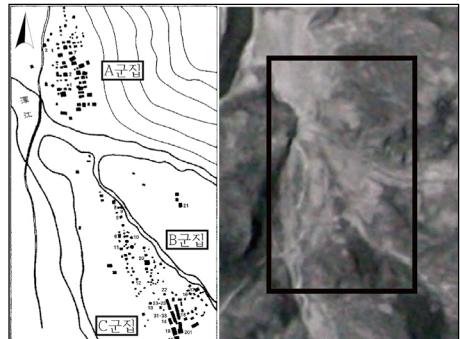
한편 만보정 242호묘는 단위 고분중 하나인 S1이 수혈식이지만 S2는 횡혈식 장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S3과 S4는 파괴가 심해 매장주체부를 식별하기 힘들지만 보고자는 횡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吉林集安縣文管所 1982). 이는 하나의 연접묘에 수혈식과 횡혈식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수혈식 장법에서 횡혈식 장법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과도기적 형태로 판단된다(강현숙 2013; 여호규 2011).

2. 분포 양상의 특징

고력묘자 고분군은 통구 고분군에 비해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분포 양상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분포도와 조사가 이루어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통구 고분군은 각각의 고분에 대한 형식과 규모를 정리한 자료가 있어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고력묘자 고분군

고력묘자 고분군의 분포 양상을 보면 크게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A군집은 고분군 북쪽 평탄한 지대에 계단식 적석총과 봉토석실묘 약 83기가 조영되어 있다. 적석총은 동쪽 산기슭 아래에 집중 분포하고 동에서 서로 전개되며 봉토석실묘는 A군집의 북단에 산발적인 분포를 보인다.



[도면 7] 고력묘자 고분군과 주변 지형
(서울대학교박물관·동북아역사재단 2008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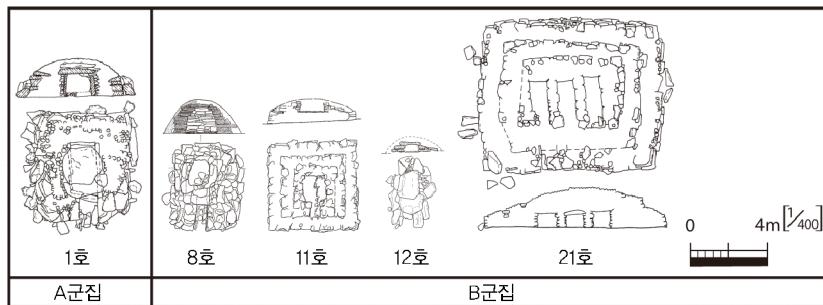
B군집은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는데 약 82기의 무덤이 산발적으로 조영되어 있으며 봉토석실묘가 다수를 차지한다. 무덤은 산발적인 분포를 보이며 C군집과는 인접해 있으나 소로(小路)를 통해 구분된다.

C군집은 산 사면에 위치하는데 구역 내 동쪽 가장자리의 소형 적석총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규모가 큰 적석총에 해당하며, 가장 남쪽에 위치한 15호묘를 기점으로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자료에 따르면 연접묘는 A나 B군집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C군집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

會 1990; 張正澤 2009).

조사된 무덤이 많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각 군집은 봉토석실묘가 적석총에 후행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A군집의 적석총과 C군집이 먼저 조영되고 A군집의 봉토석실묘와 B군집이 비교적 나중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적석총인 A군집의 1호묘와 B군집의 11호, 21호묘가 횡혈식 장법을 따른다는 점에서 수혈식 장법을 따르는 C군집의 연접묘들에 비해 조금 늦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8] 고려묘자 고분군 A군집과 B군집의 보고된 무덤(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편집)

또한 C군집에는 적석총이 분포하고 B군집에는 봉토석실묘가 대부분이란 점, 지형적으로 B와 C군집이 하나의 사면이란 점에서 두 군집은 산 사면의 방향을 따라 C군집에서 B군집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94년에 조사된 적석묘는 고분군 동남쪽의 산 사면 상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C군집 인근으로 추정된다. 적석묘가 기원후 1세기로 비정되고(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管理所 1998) 15호, 19호묘 등이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으로 비정되는 점(東潮·中田俊明 2008; 강현숙 2013)에서 C군집은 적석묘에서부터 산 사면을 따라 점차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고분군이 땅 견설로 수몰되어 추가적인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군집 내에서의 무덤 축조가 사면을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에 비춰보면 무덤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고려묘자 고분군의 연접묘는 이른 시기부터 축조되며 특정 군집에서만 확인될 뿐 아니라 15호묘를 기점으로 밀집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규모 역시 고분군 내에

서 대형에 해당하여 군집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⁴⁾

2) 통구 고분군

통구 고분군에 분포하는 고분은 1만여 기에 이르는데 그 중 적석총은 3,119기에 달하며 연접묘는 298기로 적석총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각 하위 고분군별로 연접묘의 수량을 살펴보면 산성하·만보정 고분군이 111기로 가장 많고 칠성산 고분군이 47기로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다.

[표 9] 각 고분군 연접묘 수량

	적석총 전체 수량	단독묘	연접묘	백분율(%)
우산하	1,015	940	75	7.4
산성하·만보정	1,164	1,053	111	9.5
칠성산	570	523	47	8.2
마선구	668	603	65	9.7

[표 10] 통구 고분군 연접묘 유형별 수량

유형	I								II		합계
	A				B				A	B	
	무	기	장	계	무 + 기	무 + 계	무 + 기 + 계	기 + 계	무 + 토	무 + 계 + 토	
우산하	17	27	-	14	1		-	5	-	-	64
산성하 만보정	6	55	1	35	-	-	1	11	1	1	111
칠성산	13	5	-	22	1	4	-	2	-	-	47
마선구	-	13	-	37	2	-	-	13	-	-	65
합 계	36	100	1	108	4	4	1	31	1	1	287
	245				40				1	1	

이를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⁵⁾ 모든 고분군에서 기단 또는 계단 적석연접묘, 기단+계단 적석연접묘가 다수를 점하는 가운데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은 무기단 적석연접묘의 수량이 다른 고분군에 비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선구 고분군은 무기단+기단 적석연접묘만 확인될 뿐 무기단 적석총만으로 이루어진 연접묘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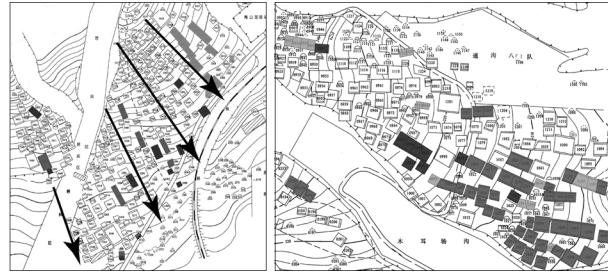
4) 보고내용이 매우 간략하여 자료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연접묘인 201호묘에서 금동제품과 은제품이 확인된 점(張正澤 2009)도 연접묘가 군집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우산하 고분군에서 벌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연접묘 중 11기는 무덤의 형태를 파악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되지 않는다.

적석총의 각 형식과 출현 시기를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양상은 통구 고분군 내에서도 하위 고분군별로 연접묘의 축조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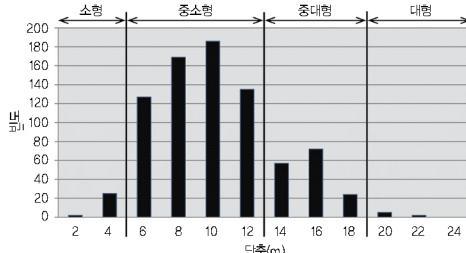
통구 고분군의 연접묘는 고력묘자와 마찬가지로 단독묘와 함께 산 경사면 혹은 하천을 따라 열상(列狀)으로 배치되거나 분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우산하 고분군의 전선석북편묘구(電線石北片墓區)와 칠성산 고분



[도면 9] 우산하(좌)와 칠성산(우) 고분군의 연접묘와 단독묘 분포 양상

군의 목이장구(木耳場溝)구역에서, 무기단 적석총보다는 기단·계단 적석총이 분포하는 군집에서 뚜렷해진다.

다음으로 연접묘를 구성하는 단위 고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규모 파악이 가능한 단위 고분을 토대로 단축 빈도를 살펴보면⁶⁾ 통구 고분군 전체에서 보았을 때 단위 고분은 단축 6~12m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단축 14m 이상부터는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렇게 빈도수의 변화가 뚜렷한 부분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도면 10] 통구 고분군 연접묘 단위 고분 단축 빈도 분포

6) 연접묘의 규모는 장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접된 무덤 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므로 단축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하나의 연접묘를 구성하는 단위 고분도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 고분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연접묘에 하나의 번호만 부여된 무덤은 단위 고분의 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단위 고분의 단축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최소 연접단위인 2기로 일괄 적용하여 자료의 한계에서 오는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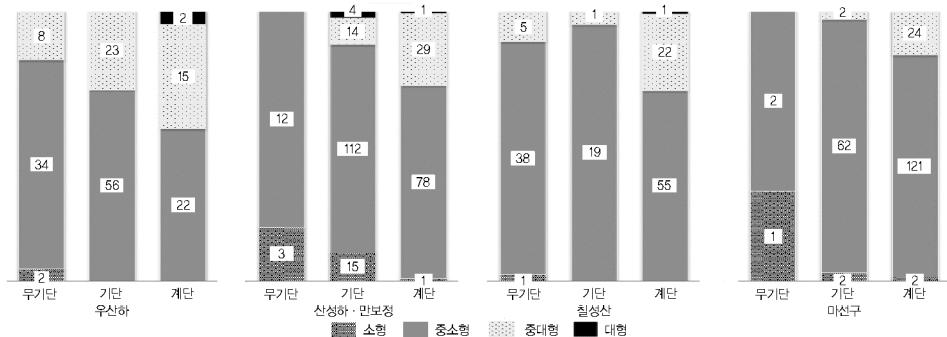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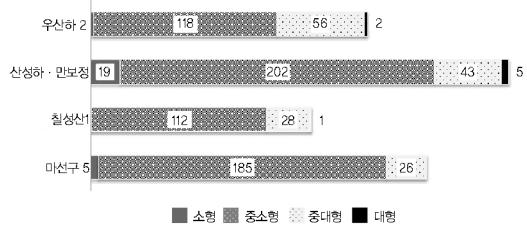
[표 11] 연접묘 단위 고분의 규모별 구분 기준과 수량

구분	소형	중소형	중대형	대형	합계
단축	5m 이하	5m 이상~13m 미만	13m 이상~19m 미만	19m 이상	
수량	27	617	153	8	805

이를 하위 고분군별로 살펴보면

단위 고분은 전반적으로 중소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중대형의
경우 우산하 고분군이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산성하·만
보정 고분군은 연접묘 수량이 가장
많지만 단위 고분 대부분이 중소형
에 해당하며 중대형은 우산하 고분
군보다 적은 모습을 보였다.

칠성산과 마선구 고분군도 중소형에 비해 중대형 단위 고분 수가 적은 모습을 보
이고 있으며 대형의 경우 산성하·만보정 고분군이 5기로 가장 많고 우산하와 칠성
산은 각각 2기와 1기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마선구 고분군에서는 단 1기도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12] 각 고분군의 단위 고분 형식별 단축 분포

다음으로 고분군별 단위 고분의 단축을 무덤 형식에 따라 세분화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⁷⁾ 무기단 적석총에 해당하는 단위 고분은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에 집중되

7) 우산하 고분군에서 규모는 파악되지만 형식을 알 수 없는 단위 고분 16기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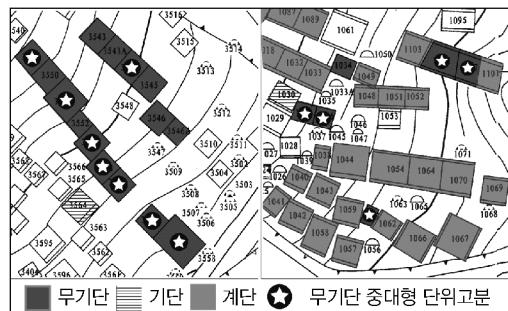
어 있으며 대부분 중소형이지만 중대형도 소수 확인된다.

하지만 우산하 고분군의 중대형 단위 고분은 모두 무기단 적석연접묘를 구성하는데 반해 칠성산 고분군은 모두 기단 또는 계단 적석총과 연접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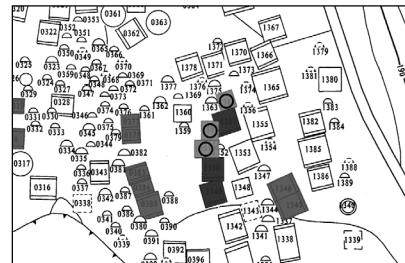
마선구 고분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기단 적석총 단위 고분이 모두 기단 적석총 단위 고분과 연접하기 때문에 무기단 적석총만으로 이루어진 연접묘는 확인되지 않으며 크기는 모두 중소형과 소형에 해당한다.

기단 적석총에 해당하는 단위 고분은 칠성산을 제외한 나머지 고분군에서 수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우산하와 산성하·만보정 고분군에서 중대형 단위 고분의 수량이 다른 고분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 산성하·만보정 고분군에서는 대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확인되며 모두 만보정에 분포한다.

계단 적석총에 해당하는 단위 고분은 전반적으로 중소형이 높은 비율을 점하며 중대형은 우산하 고분군이 수량은 적어도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선구를 제외한 나머지 고분군에서 대형의 단위 고분이 1~2기 확인되고 있다.



[도면 13]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의 무기단 중대형 단위 고분



[도면 14] 마선구 고분군 무기단 단위 고분

IV. 단계 설정 및 전개 과정

1. 단계 설정

적석총 연대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무기단 적석총은 늦어도 기원전 1~2세기, 기단 적석총은 기원전후~2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李殿福 1980; 方起東 1985; 魏存成 1987). 계장 적석총은 무기단 적석총 단계부터 등장하여 3세기 후

반까지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며 계단 적석총의 경우 기단 적석총과 함께 기원전후에 등장하였다는 주장(李殿福 1980; 魏存成 1987)⁸⁾과 3세기 후반에 등장하였다는 주장(강현숙 2013)이 있다.

계단 적석총의 상한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전자는 고력묘자 19호묘 출토 재갈에 S자형 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S자형 표비가 서주~전국기와 전한시대에 유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후자는 만보정 242호묘를 상한으로 하며 무덤에서 출토된 재갈이 소구 한묘(燒溝 漢墓), 유수 노하심(榆樹 老河深) 중총 출토 재갈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만보정 242호묘는 단위 고분인 S1과 S2 내부에 석렬을 쌓아 격자 형태로 구획한 후 그 안에 돌을 채웠는데 이는 채워진 돌들에 의해 축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원리는 현대의 돌망태(Gabion)와 동일한 것으로 계단식 축조방식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장주탁 2016). 따라서 3세기 후반을 계단 적석총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형식의 적석총은 새로운 형식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5세기 전반까지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되며(魏存成 1996; 강현숙 2013; 최종택 2015)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무기단 적석총의 수량이 제일 적고, 가장 늦은 시기에 등장한 계단 적석총의 수량이 제일 많은 특징이 있다. 아울러 횡혈식 장법이 도입된 시기는 대체로 3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강현숙 2013).

따라서 연접묘는 무기단~계단 적석총까지 확인되므로 적석총이 조영되는 전시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봉토석실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도 소수 확인된다.

[표 12] 유물을 통한 연접묘 편년 비교

	東潮	강현숙
3세기 후반	고력묘자 15호묘, 19호묘 우산하 3232호묘, 3241호묘 산성하 동대파 356호묘 만보정 242호묘	산성하 동대파 356호묘 만보정 242호묘
4세기 전반	-	우산하 2891호묘
4세기 중반	우산하 3305호묘	우산하 3241호묘
4세기 후반	우산하 3105호묘	우산하 3105호묘
5세기 전반	우산하 2891호묘	-

8) 다만 李殿福은 계단 적석총이 기단 적석총과 같은 시기에 등장했거나 약간 늦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된 東潮(東潮 · 中田俊明 2008)와 강현숙(2013)의 편년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연접묘를 대체로 3세기 후반~5세기 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된 자료가 적고 유물이 빈약한 관계로 자세한 연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마저도 특정 연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접묘 전체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산하 2891호묘, 3241호묘와 같이 견해 차이가 큰 경우도 있어 앞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연대 조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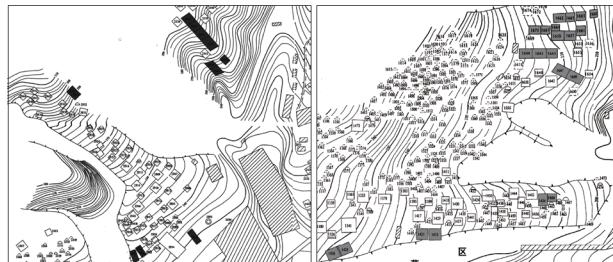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석총의 각 형식이 출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단계(무기단 적석총 단계), 2단계(기단 적석총 단계), 3단계(계단 적석총 단계)로 분기를 설정하고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조사된 자료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전개 과정의 각 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형식의 적석총은 5세기까지 공존하기 때문에 출현 시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계단 적석총이 축조되는 3단계에 무기단과 기단 적석총의 축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된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적석총의 입지와 군집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분기와 전개 과정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우산하고 분군의 2537~2542호묘, 2546호묘와 같이 산 사면 상부에 위치하거나, 칠성산 고분군의 1673~1664호묘와 같이 무기단 적석총 군집에 위치한 연접묘를 1단계로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했다.

또한 서로 다른 형식의 단위 고분이 연접한 경우 연접된 적석총의 형식 간 변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누대에 걸쳐 장기간 조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강현숙 2013)을 토대로 늦은 시기에 출현하는 단위 고분을 기준으로 단계를 설정하였다.

각 분기의 시간적 위치는 1단계를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중반, 2단계를 1세기 후반~3세기 중반, 3단계를 3세기 후반~5세기 후반으로 설정하여 구체화시켜보았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전개 과정을 고구려의 정치적 변화와 연동해 살펴봄으로써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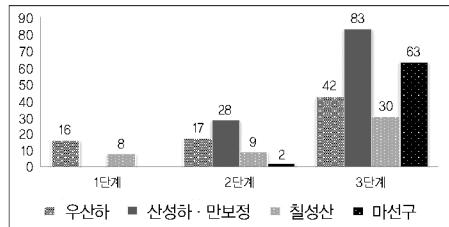


[도면 15] 우산하(좌)와 칠성산(우) 고분군의 무기단 적석연접묘 분포

2. 전개 과정과 의미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고력묘자 고분군과 통구 고분군에서 연접묘의 전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된 자료가 매우 적고 향후 자료의 축적이 요원한 상황에서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무덤 축조에 반영된 사회적 의미를 파악해봄으로써 고구려 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통구 고분군은 앞서 살펴본 자료들을 분기 설정 기준에 맞게 나누어본 결과 각 단계에 따라 하위 고분군들 사이에서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각 단계별 전개 과정과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도면 16] 통구 고분군 각 단계별 연접묘 분포

1) 1단계(무기단 적석총 단계)

고력묘자 고분군은 적석묘를 근거로 기원후 1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무덤이 조영되기 시작하며 연접묘 역시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력묘자 고분군은 오녀산성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던 곳으로 주변에 상고성자 고분군, 망강루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일대가 고구려의 초기 도성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환인지역 고구려 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⁹⁾ 고력묘자 고분군이 고구려 초기 도성을 구성하는 핵심 집단이었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또한 고력묘자 고분군은 환인 일대에서 규모가 큰 고분군에 속하며 오랜 기간 조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망강루 및 상고성자 고분군과 대비된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 도성을 구성하는 핵심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적석묘를 통해 이를 시기부터 무덤의 축조가 이루어졌고 연접묘 역시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구 고분군은 무기단 적석연접묘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시기를 구체적

9) 평양시 거주하였던 도성에 대해서는 하고성자로 보는 견해(魏成 1985; 王綿厚 2008)와 나합성으로 보는 견해(中田俊明 1998), 고력묘자 고분군이 위치한 고력묘자촌으로 보는 견해(양시온 2014; 여호규 2014 · 2018 · 2019) 등이 있다.

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조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규모에 있어서는 중소형과 중대형이 모두 확인되지만 칠성산 고분군의 중대형 단위 고분은 기단 또는 계단 적석총과 연접하므로 무기단 적석총 단계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무기단 적석총 단계의 중대형 단위 고분은 우산하 고분군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산성하·만보정과 마선구 고분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기단 적석총이 기단 혹은 계단 적석총과 연접하거나 기단, 계단 적석총이 혼재된 군집에 위치하고 있어 1단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1단계에는 연접묘가 축조되지 않는다.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은 무기단 적석총이 군집을 이루고 있고 해당 군집 안에 연접묘가 속해있다는 점에서 무덤의 조영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단계는 조사된 무덤이 극히 적어 시간적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통구 고분군의 무기단 적석연접묘를 통해 본다면 무기단 적석총이 출현하는 늦어도 기원전 1세기를 상한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2단계(기단 적석총 단계)

2단계에 들어오면 고력묘자 고분군에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석묘가 위치한 산 사면 상부에서부터 15호, 19호묘가 위치한 사면 일대까지 무덤이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력묘자 고분군이 확인 일대에서도 규모가 크다는 점, 고구려 초기 도성이 고력묘자촌 일대로 비정되기도 한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적석묘 이후 무덤 축조가 중단되었다가 C군집의 대형 무덤을 시작으로 재차 조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무덤 축조가 중단된 이유와 재차 조영이 시작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고력묘자 고분군에서도 2단계에 지속적인 무덤의 축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연접묘 역시 축조되었을 것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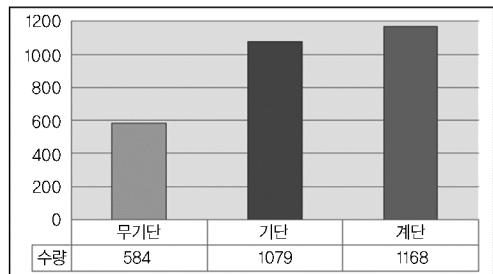
통구 고분군은 연접묘의 분포 범위가 산성하·만보정 및 마선구 고분군 일대로

10) 무기단 적석총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을 때 강현숙(2015)과 최종택(2015)의 자료를 종합하면 단축 13m 이상을 대형 무덤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은 연접묘의 수가 1단계와 비슷한데 반해 산성하·만보정 고분군은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렇듯 2단계는 연접묘가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 뿐 아니라 다른 고분군에서도 축조되기 시작하며 특히 산성하·만보정 고분군에서 활발하게 축조된다. 또한 각 고분군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연접묘의 수량은 1단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단독묘의 경우 [도면 17]¹¹⁾에서도 알 수 있듯 무기단 적석총은 기단, 계단 적석총의 수량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무기단, 기단 적석총이 계단 적석총 시기까지 일정 기간 공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단 적석총이 무기단 적석총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도면 17] 통구 고분군 적석총(연접묘 제외) 수량

따라서 통구 고분군은 기단 적석총의 상한 연대를 고려했을 때 기원전후~2세기를 전후하여 인구가 증가할 만한 사회적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2단계에 어떠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통구 분지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무덤의 축조도 활발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는 환인(출본)에서 집안(국내)으로의 수도 이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집안 지역으로의 이동은 유리왕 22년으로 기원후 3년에 해당한다.¹²⁾ 하지만 이는 『三國史記』 산상왕 13년 기록, 『三國志』 위서 동이전의 산상왕 때 기사와 상충되어 이를 근거로 산상왕 때인 209년에 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¹³⁾ 이밖에도 천도 시기와 관련된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지만

11) 해당 자료는 적석총의 각 형식별 수량을 단순 합계한 것이기 때문에 적석총의 각 형식이 상당기간 공존한다는 점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출현하는 무기단 적석총이 기단, 계단 적석총에 비해 수량의 큰 차 이를 보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2) 『三國史記』 卷1 高句麗本紀1 琉璃王 22년

13)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13년

『三國志』 위서 동이전에는 건안(建安)연간(196~220)에 왕위 다툼으로 이이보(산상왕)가 새로 나라를 세웠다는 기사가 있어 이를 천도 기사로 해석하기도 한다.

뚜렷한 결론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성에 대한 발굴조사 역시 3세기 중반 이전으로는 보기 어려워(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유리왕 때의 기사를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현숙(2015)과 여호규(2018·2019)는 국내 천도 초기 도성이 마선구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주목된다. 강현숙은 가장 이른 시기의 초대형 적석총으로 비정되는 마선구 2378호묘와 건강(建江)유적을 토대로 초기 도성이 마선구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마선구 2378호묘의 연대는 기원후 2세기 전반으로 보았는데 국내성에서 출토된 太寧(323~326)명 권운문 와당과 서대총 및 우산하 992호묘의 간지가 새겨진 권운문 와당 형식이 같음을 토대로 두 무덤의 연대를 먼저 비정한 후 이를 기술 발전에 따른 시간 간격을 고려해 역산하여 추정하였다.

국내성 '太寧'명 와당	서대총 '己丑'명 와당	우산하 992호묘 '戊戌'명 와당
		

[도면 18] 국내성 '太寧'명 와당과 서대총 및 우산하 992호묘 기년명 와당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吉林省博物館 201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편집)

건강유적은 마선하 하류 인근의 생활유적으로 일부 조사를 통해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는데 출토된 토기는 오녀산성 3기총 출토 토기와 비슷하며 기와는 마선구 2378호묘에서 확인된 기와와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호규는 환인과 마찬가지로 집안 천도 초기에는 평시 거점에 성곽을 축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고력묘자촌과 유사한 지형을 갖춘 마선구 일대가 집안 천도 이후 평시 거점¹⁴⁾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현숙과 마찬가지로 마선구 2378호묘와 같이 이른 시기의 계장적석총이 마선구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 건강유적의 존재 등을 통해 마선구 일대를 집안 천도 초기의 평시 거점으로 추정하였다.¹⁵⁾

14) 여호규(2019)는 정치적 중심지로써의 도성은 존재하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평지성이나 대형 창고 등 다양 한 인공시설물을 갖춘 도성 경관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대해 '거점'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15) 다만 강현숙(2015)은 집안으로의 천도가 1세기 후반~2세기 초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고 여호규

실제로 초대형 계장 적석총인 마선구 2378호묘와 함께 이른 시기의 초대형 적석총으로 비정되는 마선구 626호묘, 칠성산 871호묘는 모두 통구하 서쪽에 분포하고 있으며 마선구가 환인에서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교통로 상에 해당한다는 점도 마선구 일대에 초기 도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¹⁶⁾

물론 마선구에서 생활유적인 건강유적 외에 추가적인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존재하며 마선구 2378호묘와 건강유적의 존재가 『三國史記』의 기사를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기원후 2세기에 접어들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30~40m 규모의 초대형 적석총이 집안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강현숙 2013)은 수도 이전과 결부시켜 볼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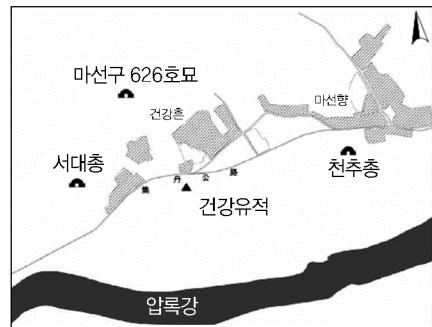
또한 무기단 적석총에 비해 기단 적석총의 수량이 증가하고 연접묘 역시 1단계에 비해 2배 이상 수량이 증가한 점은 수도 이전이라는 하나의 획기를 제외한다면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연접묘 수량의 증가는 집안 지역으로의 수도 이전과 결부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2단계의 시간적 위치는 수도 이전이라는 획기에 따라 늦어도 기원후 1세기 후반을 상한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3단계(계단 적석총 단계)

계단 적석총이 축조되는 3세기 후반이 되면 고력묘자 고분군에서는 15호묘, 19호묘와 같은 대형의 계장 혹은 계단 적석연접묘가 등장하게 되고 단독묘의 축조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연접묘는 밀집 분포하며 열상배치와 분지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주변에 위치한 무덤에 비해 규모가 크다.

특히 연접묘가 다른 무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서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점, 환두



[도면 19] 건강유적 위치도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 편집)

(2019)는 1세기 중후반으로 보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16) 고구려의 교통로에 대해서는 집안 주변에 분포하는 산성과 관애(關隘) 유적을 토대로 추정하는 연구와 함께 관구검 및 모용황의 침입 경로를 통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魏存成 1996; 東潮 · 田中俊明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대도와 철제 재갈을 비롯하여 금동제 장식, 은제 팔찌 등이 출토된다는 점에서 연접묘가 가지는 위상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3세기 후반 이후 고력묘자 고분군에서는 연접묘의 축조가 중단되는데 이는 연접묘가 친연성 또는 집단 질서를 반영하는 무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축조 집단을 결속시켜주던 친연관계가 와해되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고력묘자 고분군 축조집단은 3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자신들을 결속시켜주던 기반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3세기 이후 고구려의 정치적 변화와 대응시켜볼 수 있다. 고구려의 초기 국가체제는 계루부 왕권이 각 나부를 매개로 통치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나부 통치체제로(那部統治體制) 명명할 수 있는데(여호규 2014) 각 나부는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루부는 나부를 통한 간접지배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三國史記』 대무신왕 15년(32년)¹⁷⁾ 기사에는 비류부에서 과도한 수취가 이루어 점에 따라 왕권이 개입하여 이를 통제한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각 나부는 자신들의 세력 내에서의 수취가 가능했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나부는 계루부의 왕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3세기 전반에는 특정 나부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소외된 나부는 점차 세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여호규 2014). 그리고 3세기 초반 이후로 점차 자치권을 상실해가던 나부세력은 3세기 후반에 이르면 자치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각 읍락에 유제로 남아있던 공동체적 관계는 거의 소멸되고 나부의 지배세력이 읍락민에 대하여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은 거의 상실되었다(여호규 2014). 또한 나부체제가 해체되면서 나부의 지배세력은 대거 도성으로 이주하여 중앙귀족을 형성하게 된다(여호규 2019).

고력묘자 고분군의 축조 집단은 자신들 세력 내에서의 수취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형성했으며 이는 집단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자 연접묘를 비롯한 대형 무

17) “대신 구도 · 일구 · 분구 등 세 사람을 내쳐서 서인으로 삼았다. 이 세 사람은 비류부장이 되었는데, … 다른 사람의 처첩과 소 · 말 · 재화 등을 빼앗고…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며 원망했다…마침내 남부 사자 추발소가 대신하여 부장이 되었는데, … 구도 등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덤의 축조를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3세기 후반 이후 수취권을 박탈당하면서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고 나부의 지배세력이 도성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잔존세력은 결집을 이루지 못한 채 와해되었으며 연접묘를 비롯한 대형 무덤은 사라져간 것이다.

물론 환인 지역이 옛 수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력묘자 고분군의 축조세력을 다른 나부세력과 동일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3세기 말 이후 중앙귀족은 독자적 관원조직을 통해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나부지역이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재지 세력으로 남은 자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여호규 2014)는 점에서 환인 지역도 이를 피해가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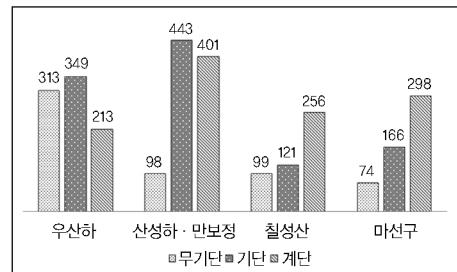
통구 고분군은 3단계에 접어들면 모든 고분군에서 연접묘의 수량이 증가한다. 특히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의 증가폭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연접묘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단독묘의 경우 기단 적석총에 비해 계단 적석총의 수량이 소폭 증가하는 것에서 그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단 적석총이 축조되는 시기에 무기단, 기단 적석총이 일정 기간 공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단 적석총이 축조될 당시 무덤 수량의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대로 3세기 중반 이후 나부체제가 해체되고 지배세력이 대거 도성으로 이주하여 중앙 귀족으로 전환한 것(여호규 2014 · 2019)과 결부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접묘는 산성하 · 만보정, 마선구 고분군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인구 증가로 인한 기존 묘역의 포화와 새로운 묘역의 설정, 선호하는 묘역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산하 고분군의 경우 오랜 기간 상위계층이 선호한 묘역으로 다른 고분군에 비해 규모가 대형 이상인 무덤이 많이 분포하는 곳이기도 하다(정원영 2017). 따라서 일찍부터 많은 무덤이 축조되면서 묘역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3세기 중반 이후 도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성과 그 주변으로 민가를 비롯한 여러 시



[도면 20] 통구 고분군 단독묘 형식별 수량

설들이 만들어지면서 묘역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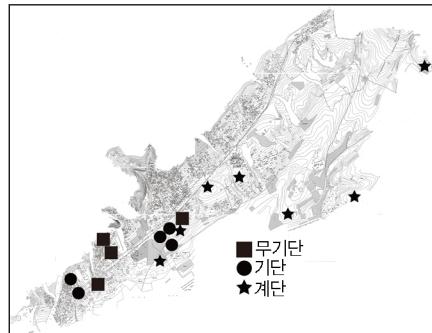
이는 우산하 고분군에서 계단 적석총의 수량이 기단 적석총에 비해 감소하는 현상¹⁸⁾과 단독으로 입지하는 대형·초대형 적석총이 점차 도성과 면 거리에 위치하게 된 것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중·소형 적석총의 축조는 제한된 묘역 안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고 연접묘의 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산성하·만보정과 마선구 고분군은 주로 하천과 인접한 대지를 중심으로 무덤 축조가 활발해지는데 연접묘 역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축조가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3단계가 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기존 묘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산성하·만보정과 마선구 일대가 새로운 묘역으로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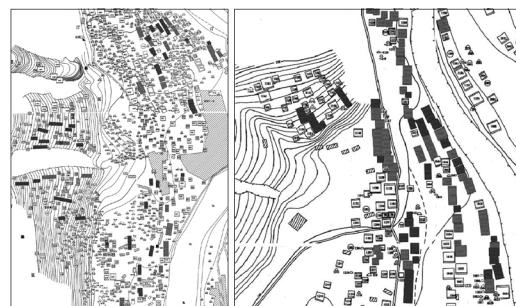
칠성산 고분군은 산 사면 하단부의 공간이 모두 채워지면 경사가 급한 상단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최종택 2015) 단독묘는 계단 적석총이 기단 적석총에 비해 증가하지만 연접묘는 단독묘에 비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단부가 채워진 3단계 어느 시점 이후로는 산성하·만보정이나 마선구에 비해 경사가 급한 지형이 연접이라는 방식으로 무덤을 축조함에 있어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실제로 연접묘는 칠성산 고분군에서도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목이장구 구역 일대에 많이 분포하며 4~5기 이상이 길게 연접한 사례도 확인되지만, 상단부로 올라갈수



[도면 21] 우산하 고분군 초대형 적석총 분포



[도면 22] 만보정(좌)과 마선구(우) 일대 연접묘 분포

18) 김유정(2006)과 최종택(2015)의 연구에서도 우산하 고분군은 기단 석곽적석총에 비해 계단 석곽적석총의 수량이 적으며 다른 고분군의 계단 석곽적석총 수량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계단 석곽적석총의 규모에 있어서는 대형·초대형에 해당하는 무덤이 다른 고분군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록 수량도 적어질 뿐 아니라 2~3기가 연접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편 3단계에 통구 고분군에서는 단독으로 입지하는 대형·초대형 적석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연접묘는 여전히 군집을 이룬 집단묘의 중·소형 적석총에서만 확인되고 있다.¹⁹⁾ 이는 대형·초대형 적석총에서는 연접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접은 중·소형 적석총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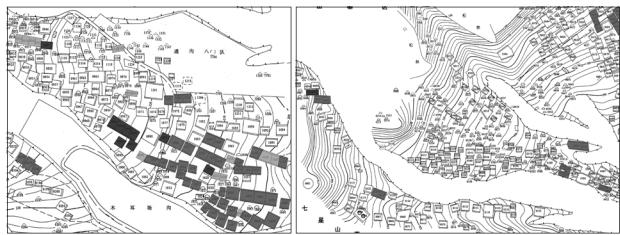
연접이 가족묘 혹은 집단묘이자 친연성을 표현하기 위한 무덤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중·소형 적석총과 대형·초대형 적석총의 이러한 차이는 축조집단의 위상 혹은 계층에 있어 모종의 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나부 자치권이 소멸된 후 세자세력 일부가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면서 중앙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등이 등장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초기 관등제는 패자(沛者)·우태(于台)·조의(阜衣) 등 다양한 계열로 이루어졌으나 3세기 중후반부터는 나부체제의 해체 및 중앙귀족이 형성되면서 사자(使者)와 형(兄)계 관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분화가 이루어지는 중기 관등제가 성립된다(여호규 2014; 임기환 2004; 琴京淑 2004).

특히 후기 관등제를 통해 보았을 때 중기 관등제에도 아버지의 관직을 그대로 이어받는 ‘부직승습(父職承襲)’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한편으로 부직승습이 자식의 서열 및 아버지와의 관계에 따라 차별 적용되면서 격이 다른 귀족세력으로 분지화 하기도 했다(여호규 2014).

따라서 중앙 귀족 내에서도 우열관계가 나타나고 부직승습을 통한 권력 계승 및 차별화로 인해 그 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무덤 축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형·초대형 적석총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무덤의 분구가 ‘모뉴



[도면 23] 칠성산 고분군 목이장구 일대(좌)와 상단부(우) 연접묘 분포

19) 연접묘의 단위 고분 중에는 대형에 속하는 무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적고 집단묘 안에 존재하여 입지적 우월성을 찾기 어렵다.

먼트(monument)’로서의 기능하였다는 점(吉井秀夫 2015)에 비추어 보자면 대형·초대형 적석총은 연접과 군집을 이루는 방식으로 집단의 친연성을 표현하기보다 분구의 고대화와 배타적 입지를 갖춤으로써 피장자 혹은 계승자의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다.²⁰⁾

반면 중·소형 적석총 축조 집단은 대형·초대형 적석총을 축조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연접과 군집을 통해 기존의 집단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무덤을 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¹⁾

결국 3단계에 일어난 고구려의 정치적 변동은 대형·초대형 적석총의 등장을 초래하였고 이들이 규모와 입지를 통해 위세를 드러냈다면, 중·소형 적석총은 기존의 연접과 군집을 통해 집단 질서를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세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접묘는 횡혈식 장법이 정착되고 중심 묘제가 봉토석실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점차 사라져갔으며 이 과정에서 적석총과 봉토석실분이 연접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묘제의 제일성이 확립되는 6세기가 되면 적석총은 축조되지 않으며 연접묘 또한 사라지게 된다(강현숙 2013).

3단계의 시간적 위치는 나부체제의 해체와 재지세력의 도성 집결이 각 고분군의 연접묘 축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늦어도 3세기 후반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한은 봉토석실묘가 확산되면서 연접묘를 비롯한 적석총의 축조가 중단되는 5세기 후반으로 보고자 한다.

V. 결론

지금까지 고력묘자 고분군과 통구 고분군을 중심으로 고구려 연접묘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접묘는 가장 먼저 축조되는 무덤에 후속 무덤들이 덧붙여지는 형태의 고분으로 적계는 2~3기, 많게는 10기 이상의 무덤이 연접하며 동일 형식의 무덤이 연접하기도 하지만 다른 형식의 무덤이 연접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띤다.

20) 강현숙(2013)도 적석총이 규모와 분형에서 신분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는 분구 지향적인 묘제라고 하였다.

21) 적석총의 축조기법에 관한 연구(장주탁 2016)에서도 연접묘는 석재의 가공 정도, 적석 양상, 배장주체부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력묘자 고분군의 연접묘는 특정 군집에서만 확인되며 분지화 현상이 뚜렷하고 규모도 대형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구 고분군은 축량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하위 고분군별로 연접묘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적석 총 각 형식의 등장 시점에 따라 3단계로 분기를 설정하고 연접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각 분기는 고구려의 정치적 변동과 연동하여 시간적 위치를 구체화해 보았다.

1단계(무기단 적석총 단계)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중반에 해당하며 고력묘자와 통구 고분군 모두 연접묘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고력묘자 고분군은 주변 유적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초기 도성의 핵심세력으로 생각되며 통구 고분군은 우산하와 칠성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축조가 이루어진다.

2단계(기단 적석총 단계)는 1세기후반~3세기 중반에 해당하는데 고력묘자 고분군은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2단계에도 연접묘를 비롯한 적석총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통구 고분군은 고분군 전체로 연접묘가 확산되며 수량도 증가한다. 단독묘 역시 수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수도 이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3단계(계단 적석총 단계)는 3세기 후반~5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고력묘자 고분군은 다수의 연접묘가 축조되며 규모와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위상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세기 후반 이후 연접묘의 축조가 중단되는데 이는 축조집단의 결속 기반이 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부세력의 자치권 상실 및 도성 집결과 결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구 고분군은 연접묘의 수량이 2단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단독묘 역시 크게 증가한다. 이는 나부의 지배세력이 도성으로 집결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접묘는 하위 고분군별로 살펴보면 양상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인구 증가로 인한 기존 묘역의 포화와 새로운 묘역의 설정, 선호하는 묘역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귀족 내에서도 격차가 생겨나면서 단독 입지의 대형·초대형 적석총이 등장하는 가운데 연접묘는 여전히 중·소형 적석총에서만 확인된다. 중·소형 적석총 축조 집단은 대형·초대형 적석총을 축조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연접과 군집을 통해 기존의 집단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력을 이어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즉, 3단계에는 연접묘가 고구려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세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

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후 연접묘는 횡혈식 장법의 정착과 봉토식설분이 중심 묘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라져갔으며 적석총과 봉토석실묘가 연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묘제의 제일성이 확립되는 6세기가 되면 적석총의 축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연접묘 역시 사라지게 된다.

투고일 2019. 12. 31 | 심사완료일 2020. 1. 22 | 게재확정일 2020. 1. 23

참고문헌

-國文-

- 강현수, 2000, 「石櫛積石塚을 통해 본 高句麗 五部」, 『역사문화연구』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_____. 2001, 「古墳을 통해 본 4·5세기대 高句麗의 集權體制」, 『한국고대사연구』24,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 _____.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5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_____. 2017, 「최근 자료로 본 중국소재 고구려 적석총의 몇 가지 구조 검토」, 『역사문화연구』6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기획편찬위원회, 2009,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2, 동북아역사재단.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북방지역 고구려·발해 유적 지도집』.
- 國史編纂委員會編, 2006, 『韓國古代史資料集成 -中國編-』1, 學研文化社.
- 琴京淑, 2004, 『高句麗 前期 政治史 研究』,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院.
- 김성철, 2005, 「고구려연결돌각담무덤의 류형과 변천」, 『조선고고연구』제3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김유경, 2006, 「集安地域 高句麗 古墳群의 分布 및 變化樣相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吉井秀夫, 2015, 「분구의 구축 과정을 통해서 본 삼국시대 분묘의 비교 연구」, 『 삼국의 성장과 물질문화』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東潮·中田俊明(박천수·이근우 역), 2008,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 柳嵐, 2001, 「高句麗 積石串墓 研究」, 『高句麗渤海研究』12, 고구려발해학회.
- 서울대학교박물관·동북아역사재단, 2008,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 여호규, 2011, 「고구려 적석묘의 내·외부 구조와 형식분류」, 『동아시아의 고분문화』, 중앙문화재연구원.
- _____.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_____. 2018, 「고구려 國內城期의 都城景觀과 토지이용」,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토지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 _____. 2019, 「高句麗 國內城期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 『高句麗渤海研究』65, 고구려발해학회.
- 오강원, 2012, 「高句麗初期積石墓의 出現과 形成過程」, 『高句麗渤海研究』43, 고구려발해학회.
- 오진석, 2010, 「통구고분군 적석총의 군집양상 연구」, 『高句麗渤海研究』37, 고구려발해학회.
- 魏存成(신용민 역), 1996, 『高句麗考古』, 湖巖美術館.
- 이동희, 2009, 「고구려 적석총에서 횡혈식석실묘로의 전환」,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 임기환, 2004, 『高句麗 政治史 研究』, 한나래.
- 임기환 외, 2009,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장주탁, 2016, 「중국 집안지역 고구려 적석총 축조기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영, 2017, 「고구려 최상위급 고분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찬영, 1989, 「기원 4세기까지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V·VII)』, 民族文化.
- 정호섭, 2008, 「고구려 적석총 단계의 祭儀 양상」, 『先史와古代』29, 韓國古代學會.
- _____. 2015, 「고구려사의 전개와 고분의 변천」, 『한국사학보』59, 고려사학회.
- 조영광, 2016, 「고구려 王都, 王畿의 형성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81, 한국고대사학회.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고구려의 고분문화』, 진인진.

- _____, 2016,『고구려의 고분문화Ⅲ』, 진인진.
- 최종택, 2015,「집안 통구 분지 고구려 고분군의 조영 과정 연구」,『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1, 한국
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최태정, 2014,「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구려의 상장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胡夢露, 2013,「高句麗 連接墓 研究」, 仁荷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中文-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9,『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書』, 科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高句麗研究
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2,『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 _____, 2004,『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 _____, 2012,「集安高句麗早期遺存研究新進展-集安建豐遺址考古發掘收獲」,『東
北史地』4期.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吉林省博物館, 2010,『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 吉林集安縣文管所, 1982,「集安万宝汀墓區242号古墓清理簡報」,『考古與文物』6期.
- 方起東, 1985,「高句麗 石墓的 演進」,『博物館研究』2期.
- 孫仁杰, 1993,「高句麗串墓的考察與研究」,『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_____, 2004,「洞溝高句麗墓地的分布與排列研究」,『東北史地』9期.
- _____, 2007,「高句麗串墓與排列研究」,『集安高句麗墓葬』, 香港出版社.
- 孫仁杰·遲勇, 2007,『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 孫進己·孫海, 1994,『高句麗 渤海研究集成』高句麗卷(二), 哈爾濱出版.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管理所, 1998,「遼寧桓仁縣高麗墓子高句麗續石墓」,『考
古』3期.
- 遼寧省博物館, 1985,『遼寧省博物館學述論文集』1949-1984.
- 魏存成, 1987,「高句麗續石墓的類型和演變」,『考古學報』3期.
- 李殿福, 1980,「集安高句麗墓研究」,『考古學報』2期, 科學出版社.
- 張雪岩, 1991,「吉林集安東大坡高句麗墓葬發掘簡報」,『考古』7期.
- 張正澤 主編, 2009,第六章「歲月有珍」,『桓仁歷史文化叢書之一 高句麗發祥聖地』, 文史出版社.
- 陳大為, 1960,「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考古』1期.
- _____, 1981,「試論桓仁高句麗續石墓的類型年代及其演變」,『遼寧省考古, 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1990,『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日文-

- 東潮, 1997,『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A Study on Development of Goguryeo Stone Mound Tomb via Connection Tomb

Hong, Jung-Woo(Researcher, Institute of Baekje Studies Seoul Baekje Museum)

Connection tomb is a tomb constructed by adding another tomb to the one built before and tombs as few as 2~3 and as many as more than 10 are connected to each other. Connection tomb is spread as a cluster with a single tomb at a mountain slope or on a plain near a river. There are types where identically or differently formed tombs are connected, showing complex aspec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connection tombs and identify the development and meaning centered on the Goryeokmyoja(高力墓子) tombs and Tonggu(通溝) tombs. Goryeokmyoja tombs are characterized by the connection tomb only within certain clusters and in a large scale. Results of an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data show that Tonggu tombs have a different aspect in types and scales of the connection tombs by subordinate tombs.

Based on above, the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connection tomb into three phases based on the periods when each form of the stone mound tombs appeared. The first is the phase of the stone mound tomb without a base, during which time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connection tomb began at the Goryeokmyoja tombs and the Tonggu tombs. Even though there is no identifiable data in case of the Goryeokmyoja tombs, in Phase 2,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nection tombs continued to be built. In addition, Tonggu tombs show that the distribution range of the connection tombs expanded and the

quantity also increased rapidly.

In Phase 3, in case of the Goryeokmyoja tombs, the construction of the connection tomb had ceased since the end of the 3rd century and the Tonggu tombs came to show a different construction mode by subordinate tombs. In particular, in Phase 3, large to super-sized stone mound tombs appeared at the Tonggu tombs and the connection tomb may still be identified only from middle to small-sized stone mound tombs.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the connection tomb in each phase reveal an aspect which may be interpreted as a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political transitions including the capital relocation of the Goguryeo Dynasty and the change of the Nabu System. In conclusion, connection tombs may be considered in relationship to the political changes in the Goguryeo Dynasty beyond concepts of a family tomb or a group tomb. Furthermore, in such political transitions, it may have acted as a means to maintaining the kinship and enhancing the group solidarity.

Key words : Goguryeo, Stone Mound Tomb, Connection Tomb, Family Tomb, Group Tomb